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4일(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기획팀장 서미숙 ☎440-4821 • 담당자 전한중 ☎440-482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개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기증 참여 홍보**  
**이달의 해양유물, “한선(韓船) 제작 도구”**  
**- 우리나라 전통 배, 한선(韓船)의 제작도구(먹통, 그무개, 먹칼) -**

인천광역시 ‘2월의 해양유물’로 우리나라의 전통 배인 ‘한선’의 제작 도구를 소개했다.

시는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 거점으로 추진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다양한 전시유물 확보와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기증을 위한 시민참여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해양유물의 소장가치를 알림으로써 유물기증에 대한 범(凡)시민 참여 분위기를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한선(韓船) 제작 도구」는 우리나라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작 도구들로 먹통, 그무개, 먹칼이다. ①먹통은 먹을 담아 사용하는 도구로, 먹이 묻은 먹줄타래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 목

재에 재단선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떡통은 파배기 모양의 머리 부분에 홈을 파서 먹줄타래를 끼워 넣고, 몸체 부분에 먹을 담을 수 있도록 둥근 구멍을 뚫어 놓았다. ②목공 작업에 필수품인 그무개는 정교하게 선을 그을 때 사용한다. 이 그무개의 고정쇠 부분은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고, 물고기의 배 부분에 구멍을 뚫어 날을 연결한 형태이다. ③대나무 먹칼은 목재에 짧은 선을 긋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한다. 먹칼의 한쪽은 얇고 뾰족하게, 다른 한쪽은 넓고 편평하게 만들었다.

「한선(韓船) 제작 도구」들은 2010년 부산에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칠 당시 기증된 자료이다. 기증자는 본인의 소장품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기증했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될 해양유물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사, 해양교류,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해양역사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할 의사가 있는 시민은 해수부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담당자(전화 044-200-5232)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매월 해양유물을 소개하여 해양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려드리고자 한다” 며, “인천의 소중한 해양역사를 후

대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기증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 2월의 해양유물 「한선(韓船) 제작 도구」



근대 | 19.3×7.6cm, 27.5×21.3cm, 23.0×1.8cm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2010년 박기석 기증

※ 출처: 본 이미지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저작권이 있음을 밝힙니다.